

# 한국 사회속의 일본어계 어휘의 사용동향\*

강 석 우\*\*

---

## 目 次

---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한국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일본어계 어휘
    - 3.1 조사의 개요
    - 3.2 한국어 장면 속 일본어계 어휘의 사용 실태와 자연도
    - 3.3 일본어계 어휘에 대한 언어인식
  4. 맺음말
- 

## 1. 머리말

현대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외국어로는 단연 영어와 일본어를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어는 20세기 전반기 지배자의 언어로서 한국어 위에 군림하였고 이로 인해 형태론적, 통사론적으로 한국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접촉과 관련한 간섭 관계에 대해, 宋敏(1979)는 1910년 한일합방 초창기에는 구어(口語)에 반영되는 데 그쳤겠지만 1920년대부터는 점차 문어(文語)에까지 확대되었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르면서 일본어의 간섭이 절정을 이루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李漢燮(1984)는 현대 한국어에 유입되어 있는 일본어를 어종별로 '①한자어 ②일본고유어 ③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어 ④일본제 영어 ⑤일본에서는 일부 혹은 전부가 혼독되는 단어이지만 한국에서는 음독으로 바뀌어 한자어로 인식되는 말 ⑥일본에서 음독된 서양어'와 같이 6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한국어에 유입된 일본어 어휘들은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

---

\* 이 논문은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사회언어학

다. 특히 일본어 원음 그대로인 일본어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어계 어휘는 실제로 어떤 어휘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또 사라져가고 있는지 등 실제 사용의 측면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에 유입되어 있는 일본어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일본어 원음 그대로인 일본어계 어휘의 실제 사용 실태와 언어 인식 등에 대해 한국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어휘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한국어에 외래어 및 외국어가 쓰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姜信沆(1984)에서는 일본어계는 주로 건축업, 양복점, 미용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쓰이며, 영어 등 서구어계는 의약계, 화장품업계, 필수품이 아닌 호화사치품, 여성복식, 고급상품, 양품, 식품, 컴퓨터, 방송, 스포츠, 양과자업, 학생사회, 학술분야, 병기 등 군사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분야별로 외국어와 외래어의 사용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 듯하다.

외국어와 외래어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구분하여 내릴지에 대한 문제와 국어순화차원에서 일본어계 어휘의 남용에 관한 문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일본어계 어휘가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어계 원음 어휘가 우리말과 섞여 사용되는 장면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각종 국어순화운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어순화운동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曹喜澈(1994)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일본어계 어휘와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 중에서 학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熊谷(1990, 1991)은 자료집 형태의 연구 보고이다. 전자는 한국 사회에 사용 어휘 또는 이해 어휘로서 현존하는 일본어계 차용어 중에서 총 273개의 어휘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어휘에 대한 의미와 용법, 어원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후자는 1945년 이전의 소설이나 희곡 등 조선어 출판물을 조사하여 문헌 안에 나오는 일본어 원음 중에서 전이(轉移)되어 쓰인 예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熊谷의 연구는 일본어 어휘가 한국에서 원래의 의미 외에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와 사용 범위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내 일본어계 원음 차용 어휘의 형성 과정

을 해명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어휘의 의미에 대해 문헌을 통해 얻은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실제 조사를 통한 실태 보고도 다수 있다. 金海星(1977), 최현주(1983)은 각각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은어 사용에 관한 조사 보고인데, 당시 학생들 사이의 은어나 속어에 일본어계 어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태를 엿볼 수 있다. 李庸惠(1995)는 전라남도 거문도 어촌지역에서 일본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2명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그 곳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계 어휘 등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 보고하고 있다. 또한 眞田·姜(1996), 姜錫祐(2002)는 모두 한국인이 일본어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자는 어휘를 사용자의 속성(세대, 남녀, 일본어 학습의 유무)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후자는 고빈도 어휘 20개를 중심으로 개별 어휘의 한국 내 사용 상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깊으며 매우 흥미롭다.

전문 영역에 관한 보고에는 李炫馥(1979), 朴在權(1999a, 1999b, 2000)을 들 수 있다. 李炫馥(1979)는 영화나 출판, 봉제, 건축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계 차용어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위에 열거한 朴在權의 연구는 모두 한국의 군대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식 군대 용어에 관한 조사 보고이다. 그 밖에 宋敏(1979)는 상기에 열거한 보고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현대 일본어가 형태나 통사 구조면에서 일본어의 간섭을 받고 있는 예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3. 한국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일본어계 어휘

#### 3.1 조사의 개요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실생활 속에서 한국어와 섞여 사용되는 일본어계 어휘 중 일본어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우선 선정하고, 이러한 어휘를 실제로 한국인이 어떤 언어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밀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출신자로서 일본어를 학습한 적이 없는 10대~50대까지의 남녀 2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출신자로 지역을 한정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어계 어휘의 사용 양상을 볼 때 어휘의 사용 빈도나 의미 영역이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일본인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일대일 면접조사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피조사자 각각 5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1> 조사 어휘

언어	단어수	개별 어휘
일본어	10	무대포(無鐵砲), 기스(傷), 신빵(新品), 만탄(만땅), 스리(すり), 유도리(ゆとり), 앓사리(あっさり), 고마이(勾配), 꾸무리(曇り), 고테(こて)
일본경유외래어	2	텔레비(テレビ), 스텝(スリッパ)
영어	2	호텔, 스케이트
한국어	2	살바, 사리

이 연구에서는 위의 <표1>과 같이 일본어 10개, 일본 경유 외래어 2개, 영어 2개, 한국어 2개 총 16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호텔’ ‘스케이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정착하여 쓰이고 있는 영어계 외래어와 ‘살바’ ‘사리’와 같은 우리 고유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본 조사가 일본어와 관련한 조사임을 피조사자가 알지 못하도록 조사 기법상 첨가한 어휘(dummy)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어휘는 일본어계 원음 어휘 10개와 일본 경유 외래어 2개를 합쳐 모두 12개의 어휘로 보면 될 것이다.

熊谷(1990)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계 원음 어휘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어 원어민이 자국어인지 외국어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일본어계 원음 어휘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대일 면접 조사라는 조사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조사의 특성상 많은 어휘를 조사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조사 어휘의 수를 16개 정도로 한정하였다. 조사 어휘는 眞田·井上·姜(1996)의 조사에서 얻은 352개의 어휘 중에서 고빈도 사용 어휘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임의적으로 골라 선정하였다.

사실 이러한 조사는 무척 민감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조사자가 몇 개의 단어를 열거하는 것만으로 일본과 관련된 조사라는 것을 피조사자가 알아차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조사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조사가 일본어 연구의 일환이고 조사자가 일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조사자가 모르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실제 조사 시에는 영어나 한국어를 섞어 어휘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였다. 조사 어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살파 → 테레비 → 스리 → 무대뽀 → 호텔 → 유도리 → 앓사리 → 고바이 → 스케이트  
→ 기스 → 꾸무리 → 스투빠 → 싹뽀 → 사리 → 만땅 → 고테

이상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대상, 조사 어휘 등 조사의 대략적 방향과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 3.2 한국어 장면 속 일본어계 어휘의 사용 실태와 자연도

그렇다면 상기한 일본 경유 외래어와 일본어계 원음 어휘를 일상생활의 한국어 장면 속에서 한국인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사 방법으로 조사자가 조사 대상 어휘를 넣어 만든 아래 보기와 같은 단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리드하면서 각각의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피조사자 자신이라면 이러한 표현(어휘를 중심으로)을 사용하는지, 들어본 적은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어 장면 속 일본어계 어휘의 자연도를 가늠할 수 있다.

보기 : 씨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살싸싸움**에 달려있다.  
기 : 지난주 일요일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테레미**만 봤어요.  
기 : 어제 옆집 할머니가 시내 한복판에서 **스리(쓰리)**를 당했대요.  
그 사람 일 하는 게 너무 **무대뽀**(식)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어디입니까?  
그 친구는 정말 **유도리**가 하나도 없어. 이야기가 안 통해.  
그 친구는 성격이 **앗살**해서 좋아. 정말 앓살한 사람이야.  
**고바이(고바위)**가 많으면 운전하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 장롱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기스**투성이예요.  
오늘 날씨가 **꾸무리**하죠? 비 올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여름에는 맨발에 **스레빠(스리빠)**만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네요.  
와! 이거 **싹뽀(썸뽀)**이네요. 오늘 샀어요?  
(식당에서)이주머니! 여기 **사리**하나 더 주세요.  
(주유소에서)기름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머리모양이 예쁘네요. **고테**했어요?

<표2>는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보기에도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사 순서와 달리하여 어종별로 정리하였다. 한편 조사 기법 상 별도로 추가한 영어와 한국어는 표에서

<표2> 한국어장면 속의 개별어휘에 대한 자연도

조사어휘		조사어휘															
		테레비	스레빠	무대뽀	기스	신빵	만땅	스리	꾸무리	고테	앗사리	유도리	고바이	호텔	스케이트	살바	사리
10대	a 여(14)중학생	●	●	●	●	●	○	●	●	○	●	○	○	●	●	●	●
	b 남(15)중학생	●	●	●	●	●	●	○	●	○	○	○	○	●	●	●	●
	c 남(16)중학생	●	●	●	●	●	●	○	○	○	○	○	○	●	●	●	●
	d 여(17)고교생	●	●	○	●	●	●	○	●	●	○	○	○	●	●	●	●
	e 여(17)고교생	●	●	●	●	●	●	●	●	●	○	○	○	●	●	○	●
	f 남(18)고교생	●	●	●	●	●	○	●	●	●	○	○	○	●	●	●	●
	g 남(19)대학생	●	●	●	○	●	●	●	○	○	○	○	○	●	●	●	●
20대	h 여(20)대학생	●	●	●	●	●	●	●	●	○	●	○	○	●	●	●	●
	I 남(21)대학생	●	●	●	○	●	●	○	○	●	●	○	○	●	●	●	●
	j 남(28)대학원생	●	●	●	●	●	●	●	●	○	●	●	○	●	●	●	●
30대	k 여(28)대학원생	●	●	●	●	●	●	●	●	●	●	●	○	●	●	●	●
	l 여(32)주부	●	●	●	●	●	●	●	●	●	●	●	○	●	●	●	●
	m 여(33)주부	●	●	●	●	●	●	●	●	●	●	○	○	●	●	●	●
	n 남(38)교직원	●	●	●	●	●	●	●	●	●	●	●	○	●	●	●	●
40대	o 여(42)주부	●	●	●	●	●	●	●	●	●	●	●	○	●	●	●	●
	p 여(43)주부	●	●	●	●	●	●	●	●	●	●	●	○	●	●	●	●
	q 남(44)교직원	●	●	●	●	●	●	●	●	●	●	●	○	●	●	●	●
	r 남(46)교직원	●	●	●	●	●	●	●	●	●	●	●	○	●	●	●	●
50대	s 여(52)주부	●	●	●	●	●	●	●	●	●	●	●	○	●	●	●	●
	t 남(53)자영업	●	●	●	●	●	●	●	●	●	●	●	○	●	●	●	●

【범례】 자연 : ●      부자연 : ○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나 참고 사항으로 두었다.

우선 일본 경우 외래어(일본식 영어)인 ‘테레비’와 ‘스레빠’를 살펴보자.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는 대체로 해당 외국어의 원래 발음에 가깝게 적는 원음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는데 이들 두 외래어는 각각 ‘텔레비전’과 ‘슬리퍼’로 말하고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서 한국어 장면 속에서 쓰이는 ‘테레비’와 ‘스레빠’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레빠’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문어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슬리퍼’로 표기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 인물일지라도 구어 상황에서 ‘슬리퍼’와 ‘스레빠’ 두 형태를 모두 사용하며, 또한 화자가 놓여진 상황과 분위기 혹은 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사용하리라 본다. 또한 ‘슬리퍼’와 ‘스레빠’는 각기 서로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슬리퍼’는 서양식 거실 등에서 사용하는 실내용 신발을 말하며 ‘스레빠’는 집의 현관이나 화장실 등에 두고 신는 신발류를 가리켜 말하는 것처럼 의미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 ‘무대뽀’, ‘기스’, ‘신뽀’, ‘만뽀’, ‘스리’, ‘꾸무리’, ‘고데’, ‘앗사리’, ‘유도리’, ‘고바이’의 일본어계 어휘에 대해 그 결과를 살펴보면 상기한 일본식 영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어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 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 듯하다. 즉 ‘고데’, ‘앗사리’, ‘유도리’, ‘고바이’의 4개 어휘는 대략 20대를 경계로 세대 차가 보인다. 주로 10대에서는 이들 어휘에 대해 한국어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의미를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경향을 보이며 20대 후반 이후의 세대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며 자연스럽게다는 대답이 주를 이루어 대조를 보인다.

이상에서는 일본 경유 외래어와 일본어계 원음 어휘를 중심으로 이들 어휘가 한국어 장면 속에 섞여 사용될 때의 자연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몇몇 일부의 어휘에서 세대 차가 보이는 하였지만 조사 어휘 대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말 속에서 일본어계 어휘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어휘에 대한 한국인의 언어 인식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

### 3.3 일본어계 어휘에 대한 언어인식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어계 어휘를 부모나 친구 등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듣고 배운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과연 이들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본어계 어휘를 일본어로 확실히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이들 어휘를 어떤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3>은 조사 대상 개별 어휘에 대한 인식 언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일본 경유 외래어인 ‘테레비’와 ‘스레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테레비’, ‘스레

빠'는 영어에서 유래한 것이나 일본을 통해 본래의 영어가 변질되어 한국어로 들어온 말이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이 두 어휘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테레비'는 대부분 영어라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스레빠'에 대해서는 영어보다는 일본어 또는 일본식 영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시 말해 '테레비'는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와 쓰이고 있음을 인식하는 이는 적지만, '스레빠'는 본래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 인식하거나 또는 일본식 영어로 인식하는 이가 많다. 이와 같이 두 어휘가 구별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현재 우리말에 쓰이는 외래어 중에서 본래는 영어이면서 일본을 통해 변질되어 들어온 어휘를 살펴보면, '카레라이스(영:curried rice)'나 '키포인트(영:main point)'처럼 완전히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형(이하, 일본제 영어)과 '아파트(영:apartment house)' '콤비(영:combination)', '인테리(영:intelligentsia)'등과 같이 영어의 앞부분을 취하고 뒤를 생략하는 유형(이하, 일본식 생략형 영어)이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레비'는 '아파트'나 '인테리'와 똑같은 유형의 일본식 생략형 영어로 분류가 가능하며 <표3>과 같이 일본을 통해 들어온 외래어로서의 인식은 얕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스레빠' 혹은 '스리빠'는 '집에서 현관 마당을 다닐 때 가볍게 신고 다니는 신발'이라는 개념이 일본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면서 영어 'slipper'의 일본식 발음과 함께 들어와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발음상 영어 본래의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어휘는 한국인에게 일본어나 일본식 영어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는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인명, 지명, 국명 등 고유 명사는 대부분 원음에 충실하여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는 모음 수가 5개뿐으로 모음 수에서 월등히 많은 영어나 서양의 언어를 제대로 원음에 가깝게 표기나 발음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표3> 개별어휘에 대한 인식언어

조사어휘		테레비 스테레오 무대 기 신 만 스 꾸 고 앓 유 고 호 스 샅 사															
		비	빠	뽀	스	빵	팡	리	무리	테	사리	도리	바이	텔	케이트	바	리
10대	a 여(14)중학생	E	<b>J</b>	D	<b>J</b>	E	<b>J?</b>	<b>J</b>	SL	?	?	?	?	SL	SL	<b>J</b>	<b>J?</b>
	b 남(15)중학생	D	D	D	SL	R	R	<b>J</b>	D	?	?	?	?	E	E	SL	D
	c 남(16)중학생	E	R	S	D	S	S	S	?	?	?	?	?	E	E	D	S
	d 여(17)고교생	E	<b>J</b>	?	<b>J</b>	<b>J</b>	S	S	?	<b>J</b>	D	?	?	E	E	SL	<b>J</b>
	e 여(17)고교생	E	<b>J</b>	S	<b>J</b>	?	S	<b>J</b>	S	<b>J</b>	?	?	<b>J</b>	E	E	?	<b>J</b>
	f 남(18)고교생	E	E	<b>J</b>	E	<b>J?</b>	<b>J</b>	?	S	E	<b>J</b>	?	?	E	E	S	S
	g 남(19)대학생	E	<b>J</b>	S	S	S	S	S	?	?	?	?	?	E	E	D	D
20대	h 여(20)대학생	E	S	S	<b>J</b>	<b>J</b>	S	E	S	<b>J</b>	D	<b>J</b>	?	E	E	SL	SL
	i 남(21)대학생	E	<b>JE</b>	S	<b>J?</b>	?	S	S	?	?	S	SL	?	E	E	D	<b>J</b>
	j 남(28)대학원생	KE	KE	K	<b>J?</b>	R	S	S	D	E?	K	S	D	E	E	SL	D
30대	k 여(28)대학원생	E	<b>JE</b>	<b>J</b>	<b>J</b>	<b>J</b>	<b>J</b>	<b>J</b>	SL	<b>JE</b>	SL	S	D	E	E	SL	<b>J</b>
	l 여(32)주부	E	<b>J</b>	SL	<b>J</b>	S	S	<b>J</b>	S	<b>J?</b>	S	SL	?	E	E	SL	?
	m 여(33)주부	<b>JE</b>	<b>J</b>	S	?	S	?	<b>J</b>	D	<b>J</b>	D	D	?	E	E	SL	<b>J</b>
	n 남(38)교직원	<b>JE</b>	<b>JE</b>	?	<b>J</b>	S	<b>JE</b>	<b>J</b>	S	<b>J</b>	<b>J</b>	<b>J</b>	S	E	E	SL	<b>J</b>
40대	o 여(42)주부	E	KE	SL	<b>J</b>	D	D	<b>J?</b>	SL	<b>J</b>	SL	D	D	E	E	<b>J</b>	<b>J</b>
	p 여(43)주부	E	<b>J</b>	R	<b>J</b>	<b>J</b>	<b>J</b>	<b>J</b>	D	<b>J</b>	<b>J?</b>	S	D	E	E	<b>J</b>	?
	q 남(44)교직원	E	<b>J</b>	S	<b>J</b>	S	S	<b>J</b>	S	<b>J</b>	S	S	S	E	E	SL	<b>J</b>
	r 남(46)교직원	<b>JE</b>	<b>J</b>	S	<b>J</b>	<b>J</b>	<b>J</b>	<b>J</b>	D	<b>J</b>	S	<b>J</b>	D	E	E	<b>J</b>	<b>J</b>
50대	s 여(52)주부	E	<b>J</b>	<b>J</b>	<b>J</b>	<b>J</b>	<b>J</b>	<b>J</b>	D	<b>J</b>	<b>J?</b>	S	<b>J</b>	E	E	<b>J</b>	?
	t 남(53)자영업	KE	<b>JE</b>	D	<b>J</b>	S	S	S	S	<b>J</b>	S	<b>J?</b>	D	E	E	D	<b>J</b>

【범례】 한국어 : K (표준어 : SL 방언 : D 속어 : S 유행어 : R)  
 영 어 : E 한국식영어 : KE 일본식영어 : **JE**  
 일본어 : **J**  
 잘 모르겠다 : ?

다음으로는 ‘무대뽕’, ‘기스’, ‘신뽕’, ‘만뽕’, ‘스리’, ‘꾸무리’, ‘고데’, ‘앗사리’, ‘유도리’, ‘고바이’와 같은 일본어계 원음 어휘는 어떠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3>에서 이들 10개의 어휘를 자세히 보면 각각의 어휘에 따라 인식하는 언어도 제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는 이러한 인식언어의 차이에 보이는 경향을 중심으로 개별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무대뽕’, ‘꾸무리’, ‘앗사리’, ‘고바이’, ‘유도리’에 주목해 보면 이들 어휘는 일본어계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는 일본어임을 인식하기에 어려운 어휘 그룹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무대뽕’는 <표2>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의 전 세대에 걸쳐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어휘이다. 그러나 그 실체를 보면 일본어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우리말의 방언이나 속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꾸무리’, ‘앗사리’, ‘고바이’, ‘유도리’는 20대 전후반을 경계로 이해도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0대 전반까지의 연령 대는 이들 어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가 많은 반면, 20대 후반 이후의 연령 대는 이들 어휘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무대뽕’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우리말의 방언이나 속어 또는 표준말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특히 이들 4개의 어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로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우선 발음과 의미에서 오는 어감이 우리말을 연상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무대뽕’은 한문의 ‘없을 무(無)’와 무기의 일종인 ‘대포’를 연상하게끔 하며, ‘고바이’ 역시 한문의 ‘높을 고(高)’와 ‘바위’를 연상시킨다. 실질적으로 ‘고바이’는 ‘고바위’로 발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우리말의 동사 ‘하다’가 뒤에 첨가됨으로써 일본어적인 느낌이 줄어든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실제로 ‘꾸무리’는 ‘꾸무리하다’로 ‘앗사리’는 ‘앗살하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말과 같은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유도리’ 또한 ‘유들유들하다’라는 우리말과 의미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인들이 이들 어휘들이 일본어에서 유래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스’, ‘신뽕’, ‘만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하겠다. 이들 어휘는 위에서 살펴본 어휘에 비해 비교적 일본어로 잘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스’의 결과를 살펴보면 10대에서 우리말의 표준어, 방언, 속어, 영어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연령 대에는 모두 일본어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뽕’과 ‘만뽕’ 역시 우리말 속에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스’에 비하면 일본어보다는 우리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연령 대에 따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말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어휘는 앞서 살펴본 ‘꾸무리’나 ‘고바이’와는 달리, 방언보다는 속어나 유행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도 흥

미롭다. 한편 ‘신뽕’은 실생활에서는 ‘썸뽕’, ‘썸뽕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의 주변 생활에서 자주 쓰고 들었던 일본어계 원음 어휘 중에 ‘와리바시’, ‘쓰메끼리’, ‘변또’, ‘요지’, ‘빠게쓰’ 등이 있다. 이들은 적어도 30대 이상의 세대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거나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어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요즈음 10대 대다수는 이와 같은 말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만약 안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바른 말 고운 말 쓰기’와 같은 국어순화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국어순화운동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휘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일본어 원음 어휘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스’의 결과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하겠다. ‘기스’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져 쓰이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스’는 구어에서뿐만 아니라 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 주로 ‘생활기스’ 또는 ‘잔 기스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 ‘기스’를 우리말로 옮기면 ‘흠’, ‘흠집’이나 ‘티’ 또는 ‘상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흠(흠집, 티)’이나 ‘잔 +흠(흠집, 티)’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우리말 ‘흠’, ‘흠집’이나 ‘티’가 가지는 의미 범주가 ‘기스’와는 미묘하게 다르다고 느끼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예컨대 ‘흠’, ‘흠집’은 ‘기스’에 비해 물건이 상한 정도가 크게 느껴지고 ‘티’는 물건이 상한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먼지나 티끌이 묻어있다는 어감이 있다. 따라서 설령 ‘기스’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어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어에서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의미범주에서 우리말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일본어계 어휘는 우리말로 대체하여 쓰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리’, ‘고데’의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하겠다. 이들 어휘는 공통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대략 20대 후반을 경계로 한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와 30대 이후의 세대 사이에는 이들 어휘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보인다. ‘스리’와 ‘고데’의 결과를 비교하며 살펴보면, ‘스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해 어휘 또는 사용 어휘로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0대와 20대는 이를 속어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대 이후의 세대는 일본어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데’의 경우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30대 이후의 세대는 일본어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단, 10대와 20대에서도 몇몇은 일본어라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데’가 여성들의 미용과 관계있는 용어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바’와 ‘사리’는 조사기법 상 첨가한 우리 고유어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살바’에 비해 ‘사리’는 일본어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이들 어휘의 음운적 인상이 일본어와 비슷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 4. 맺음말

현재 우리말 속에 섞여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계 원음 어휘의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민간에서는 각종 국어순화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언어 생활 속에서 원음 그대로인 일본어를 듣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본 조사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일본어계 원음 어휘와 일본 경유 외래어를 중심으로 이들 어휘가 우리말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 경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일본 경유 외래어 중에서 ‘테레비’는 일본식 생략형 영어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들 유형은 대부분 영어 본래의 발음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인에게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외래어로서의 의식이 매우 얁다. 이에 반해 ‘스레빠’와 같이 영어 본래의 발음과 확연히 구별되는 어휘는 일본어 또는 일본식 영어로 명확히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② ‘무대뽀’, ‘꾸무리’, ‘앗사리’, ‘고바이’, ‘유도리’와 같이 발음과 의미에서 오는 어감이 우리말을 연상할 수 있거나 우리말의 동사 ‘하다’가 첨가될 수 있는 어휘는 한국인에게 일본어로 인식하기 어렵다.
- ③ ‘기스’와 같이 의미 범주에서 우리말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거나, ‘스레빠’나 ‘슬리퍼’처럼 의미 분화를 일으키는 어휘는 설령 이들 어휘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말로 대체하여 쓰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조사의 특성상 한정된 어휘와 적은 인원으로 그 경향과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말 속에 섞여 사용되는 일본어계 원음 어휘의 사용 동향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미시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우리말 언어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 【參考文獻】

### <한국>

- 강석우(2000) 「한국인의 외국어 수용 의식」 『일본어문학논집』 辛容泰역음 박이정, pp.1~17
- 姜信沆(1984) 「현대 한국인의 외국어 및 외래어 어휘 사용 양상과 그 문제점」 『韓國語研究論文』 第5輯 KBS韓國語研究會, pp.97~115
- 熊谷明泰(1990) 「韓國社會で用いられる日本語系借用語——その意味・用法の辭書的記述試案——」 『韓國外國語大學校論文集』 第23輯別冊, pp.295~322
- 熊谷明泰(1991) 「朝鮮語に轉移使用された日本語語句」 『韓國外國語大學校論文集』 第23輯, pp.345~371
- 김봉모(1998)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식 외래어 분석」 『韓國民族文化』 11호 釜山大學校韓國民族文化研究所, pp.105~154
- 金永銖(1983) 「大學生의 言語生活實態와 國語恢復의 方案——對話속의 外國語混用相을 中心으로——」 『새마을 研究論叢』 제3집 새마을연구소, pp.97~125
- 金海星(1977) 「韓國大學生의 隱語調查——남녀대학생 1270명의 응답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76 국어국문학회, pp.172~193
- 朴在權(1999a) 「日本語式軍隊用語使用の分析」 『日本學報』 第42輯 韓國日本學會, pp.51~66
- 朴在權(1999b) 「일본어투 군대용어의 변화실태(Ⅰ)」 『日語日文學研究』 第35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p.63~87
- 朴在權(2000) 「일본어투 군대용어의 변화실태(Ⅱ)」 『日語日文學研究』 第37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p.69~91
- 宋 敏(1979)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現代韓國語와 日本語의 경우——」 『聖心女子大學論文集』 第10輯, pp.29~62
- 李炫馥(1979) 「기술용어의 현황과 문제점」 『국어의 순화와 교육』 정신문화연구원, pp.287~307
- 임소영·안주호(2004) 「대학생의 외래어 사용 양상——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글』 263 한글학회, pp.125~154
- 최현주(1983) 「高校生의 隱語使用 實態 調査 分析——男女 高校生 1172명의 응답자료를 중심으로——」 『어문교육논집』 제7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pp.175~191

### <일본>

- 姜錫祐(2002) 「韓國人の生活の中で使われている日本語の一實態」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語觀國際センサス』 國立國語研究所國際シンポジウム第6~8回專門部會報告, 國立國語研究所, pp.67~78
- 眞田信治·井上文子·姜錫祐(1996) 『韓國人の日本語觀に關する調査研究』 科學研究費(創成的

基礎研究費)報告書, p.100

- ・ 眞田信治・姜錫祐(1996)「韓国で日本語と意識されて使われている語彙について」『待兼山論叢--日本學編』第30号, 大阪大學, pp.1~9
- ・ 新プロ「日本語」總括班・研究班1編(1999)『日本語觀國際センサス單純集計表(暫定速報版)』科學研究費(創成的基礎研究費)報告書, p.163
- ・ 曹喜澈(1994)「韓国における「國語醇化運動」と日本語」『日本語學』12月号, 明治書院, pp.81~90
- ・ 李漢燮(1984)「現代韓國語に入っている日本語—日本で一部または全部が訓讀みされる語を中心として—」『語文』44輯, 大阪大學, pp.22~35
- ・ 李庸惠(1995)「韓国に生き残っている日本語について」『日本研究』第9号, 日本研究研究會(廣島大學総合科學部日本研究教室内), pp.15~26

K C I

## 要 旨

現在、韓国人の生活のなかで多く使用されている日本語系原音語彙は、日帝時代の副産物と見られる。その間政府と學界、民間では各種の國語醇化運動を展開し、多くの成果を上げている。とはいえ、光復60年を迎える今日でも韓国人の言語生活の中で原音そのままの日本語を聞くことは、それほど珍しいことではない。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本研究は、韓国人が認識しにくい日本語系原音語彙と日本経由の外來語を中心として、これらの語彙が韓國語に混ざっている理由は何か、またその傾向はどのようなも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

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 ①日本経由の外來語の中で「テレビ」は日本式省略型英語の類型に分類され、これらの類型は大部分英語本來の發音がそのまま保持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そのため韓国人には日本を通して入ってきた外來語であるという意識がかなり薄い。これに對して、「スリッパ」のような英語本來の發音と確然と區別できる語彙は、日本語または日本式英語として明確に認識される傾向にある。
- ②「無鐵砲」、「くもり」、「あっさり」、「勾配」、「ゆとり」のように發音と意味から來る語感が、韓國語を連想することができたり、韓國語の「-하다(-hada)」を添加させることができたりする語彙は、韓国人に日本語として認識されにくい。
- ③「きず」のように意味範疇で韓國語と微妙な違いがあったり、「スリッパ」や「slipper」のように意味分化を起こしたりする語彙は、たとえこれらの語彙が日本語から由來す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ても、韓國語で代替して使用しにくい。

本研究では、調査の特性上、限定された語彙とわずかな被調査者でその傾向と結果を出していることが問題点として指摘できる。しかし、韓國社會における日本語系原音語彙の使用動向について具体的に調査し、微視的に考察したことに本研究の意義がある。今後の韓國の言語政策の立案に必要な基礎資料になることを期待したい。

キーワード：國語醇化運動、日本語原音語彙、意味範疇、意味分化、日本経由外來語

투 고 : 2005. 8. 31  
1차 심사 : 2005. 9. 10  
2차 심사 : 2005. 10. 1

住 所 : (420-743) 경기도 부천시 역곡2동 산43번지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電 話 : 02-2164-4462

e-mail : kangsw@catholic.ac.kr